

# 비폭력 상징 간디 흉상 홍법사에 건립

### 인도 정부가 제작 기증... 7월 21일 제막식

부산 홍법사(주지 심산)에 평화와 비폭력을 상징하는 인도 간디 흉상이 국내 최초로 건립됐다. 홍법사 경내 입구에 세워진 간디 흉상은 한국과 인도 수교 41주년 및 부산인도문화원 개원 기념으로 인도정부가 제작·기부한 것으로 2011년 서울 대학로에 제막된 인도의 시인이자 사상가인 타고르에 이어 흉상으로 제작된 두 번째 위인이다.

간디 흉상 앞면에는 한글과 영문으로 '모한다스 카람찬드 간디'라는 이름과 함께 인도정부에서 기증했다는 내용이 적혀 있으며 뒷면에는 '한-인도 외교수립 40주년과 부산인도문화원 개원을 기념하며 인도정부에서 기증'이라는 한글문구로 양국 간의 동독한 불교문화 교류를 입증하고 있다. 이에 7월 21일 간디 흉상을 공개하는 제막식을 가진 홍법사는 내빈들의 환영사와 감사인사, 인도공연단의 축하공연으로 양국 간의 우호를 발원했다.

장덕민 부산인도문화원 원장은 환영사에서 "한국과의 수교를 위해 먼 나라에서 이곳까지 찾아와주시는 인도 내빈 분들께 감사함을 먼저 전하고 싶다. 또한 간디 흉상이 부산 불교의 대표 사찰이랄 수 있는 홍법사

### ‘한-인도 외교수립 41주년 홍법사 인도문화원 공동 행사 양국간 불교교류 앞장 다짐

이 우리 양국 간의 교류이자 앞날의 이정표가 될 것이다"라며 간디 흉상의 의미를 전했다.

주한인도대사 비쉬누프라카시는 "한국에서 이루고자 하는 서원이 있었다. 바로 인도 불교의 대부 간디 흉상을 한국 최초로 설치하는 것이었다. 또한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으신 보리수 묘목을 우리 인도정부가 한국정부에 전달했다. 지금 보리수 묘목이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적합한 사찰을 찾고 있는 중이다. 우리의 이러



홍법사 주지 심산 스님과 참여 내빈들이 간디 흉상 공개 후 박수를 치고 있다.

한 노력이 하나씩 모여 인도 불교와 한국 불교가 화합하고 나아가 국가 간의 교류까지 확대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비쉬누프라카시는 "간디의 수만 명을 위한 비전과 사랑은 석가모니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을 아우르는 것이다. 오늘날의 첫걸음으로 간디의 사상이 부산으로부터 한국 전역까지 널리 퍼졌으면 한다"며 간디의 사상을 치하했다.

한나라문화재단 이사장이자 홍법사 주지인 심산스님은 "한국과 인도, 앞으로의 앞날에 대해 어떠한 말이 필요하겠는가. 그저 오늘같이 뜻 깊은 날을 위해 노력해주시는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고

전했다. 한편 ICCR 부설인 부산인도문화원은 지난 2013년 12월 홍법사 옆에 위치하고 있는 건물에서 첫 개관을 했다. 부산인도문화원이 있는 건물은 홍법사가 인도와의 문화교류를 위해 무상으로 임대해두고 있는 건물로 이를 계기로 간디 흉상을 홍법사에 설치하는 등 다양한 불교문화 프로그램을 홍법사와 함께 펼쳐 나가고 있다. 더불어 홍법사는 인도 영화제 개최, 인도영화 무료상영 등으로 인도문화 홍보와 교류에 앞장 서고 있어 이번 간디 흉상을 기부 받은 영예를 안게 됐다.

김나영 객원기자

# “그대와 나, 오늘 부처의 품에 들다”

### 통도사 여름수련법회 ... 7월 18~19일

영축총림 통도사(주지 원산)가 '그대와 나, 오늘 부처의 품에 들다'라는 주제로 2014 여름수련법회를 개최했다. 신행단체, 불교대학, 일반인, 어린이, 중·고등학생, 직장인 등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수련법회를 진행해온 통도사는 7월 18일 불교대학 90여 명을 대상으로 1박 2일 일정을 진행했다.

첫날 입재식에서 참가자들은 발원문 낭독에 이어 주지 원산스님의 법문과 관세음보살보문품 및 사십이수진인 독송으로 부처님께 나아가는 삶을 발원했으며 저녁 공양시간인 발우공양에서는 스님들의 친절한 설명과 함께 수련회 일정을 차분하게 진행했다.

심야 시간에는 이전 여름수련법회와는 색다른 순서로 참석자들을 감동케 했다. 저녁예불 후 통도사 야외마당에서 펼쳐진 음악회에서 참가자들은 저마다 눈을 감고 명상



여름수련회 참가자들이 진지한 표정으로 지도법사 스님들에게 연비를 받고 있다.

### 불교대생 90여명 참가 삼보일배·수계식 등

에 빠져들었다. 이는 통도사에서 올해 처음으로 마련한 순서로 참가자들에게 복잡한 도시에서 벗어나 힐링과 더불어 자신의 내면을 스스로 치유하게 하기 위한 특별순서였다.

둘째 날에는 새벽예불에 이어 일주문에서 적멸보궁까지 삼보일배가

진행됐고, 마지막 순서로 수계식이 통도사 울주 해남스님의 법문과 연비로써 봉행됐다. 해남스님은 "여러분의 팔에 향이 닿는 순간, 모든 고뇌와 업이 한순간에 사라질 것이다. 오늘 수계식을 두고두고 기억하여 앞으로도 계를 지키는 불자로 정진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통도사 여름을 맞아 다양한 여름수련법회를 진행하며 회향은 8월 17일이다.

김나영 객원기자

# 재활용 놀이극으로 예술적 감성 일깨워

###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지역아동 초청 무료공연



환경아동극인 고물놀이극에 참여하고 있는 거제시 아동들.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이 위탁 운영하는 경남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관장 박기련)이 7월 14일 지역 내 아동들을 초청해 고물놀이극 '쿵팡쿵팡 고물놀이' 문화공연을 선보였다.

환경아동극인 '쿵팡쿵팡 고물놀이'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주최하는 '신나는 예술여행' 사업의 일환으로 문화공연 및 시설이 부족한 지역 내 아동 및 주민들을 대상으로 문화 혜택을 제공하는 전국적인 프로그램 중 하나이다.

"21세기에 가장 소중하게 생각해야 할 환경"이라는 주제로 펼쳐진 이번 공연은 단순한 공연 관람이 아닌 아동들이 직접 재활용 악기들을

연주하며 예술적인 감성을 키웠다. 또한 재활용을 활용한 놀이극은 아동들의 환경에 대한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교육적인 시간이기도 했다.

행사에 참여한 어린이집 교사는 "거제지역 내에는 아동들이 즐길 수 있는 공연이 많지 않다. 아이들의 해맑은 웃음소리를 들을 수 있어서

기쁘다"며 참여소감을 밝혔다.

한편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은 지역주민에게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자 복지관 자체 사업뿐만 아니라 외부자원사업들을 초청하여 무료 문화공연을 확대하고 있다.

김나영 객원기자

# ‘해인사 소리길’ 합천군 상표 등록

### 여행 등 관련 상품 개발 예정

‘해인사 소리길’이 상표등록돼 눈길을 끈다.

합천군은 지난해 ‘해인사 소리길’ 명칭에 대해 특허등록을 출원한 바 있다. 그리고 최근 특허청으로부터 상표등록이 완료됐다는 서비스표 등록증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렇게 상표등록이 이뤄짐에 따라 합천군의 허락없이 ‘해인사 소리길’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됐다.

합천군은 앞으로 ‘해인사 소리길’ 상표를 이용해 다양한 여행·관광 상품 등을 개발할 예정이다.

한편, 합천군은 32억원을 들여 가야면에서 해인사에 이르는 홍류동 계곡 6km 구간을 ‘해인사 소리길’을 조성했다.

김나영 객원기자

# 생명존중사상으로 행복한 세상 만들자

### 생명나눔실천 부산본부 일반인 대상 강좌 마련

장기거증 결연과 환자치료비 지원 등 생명존중 사업을 펼치고 있는 생명나눔실천 부산지역본부(본부장 원범)가 제2회 생명존중 강좌를 마련했다.

생명존중 강좌는 대학생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생명존중의 의미를 생각해보고 나아가 국민의 건강하

고 행복한 삶의 방향을 알려주는 강의로 2014 부산광역시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 사업으로 선정됐다.

이번 생명존중 강좌의 강사는 정책수 한국자살예방센터장, 박동범 인을 대상으로 생명존중의 의미를 생각해보고 나아가 국민의 건강하

떻게 예방할 것인가?, ‘생명존중사상’ 등의 주제로 각각 약 1시간 반 동안 진행됐다. 오는 7월 28일 월요일부터 29일 화요일까지 이틀 동안 개최되는 제2회 생명존중강좌는 부산연합회교육관 대강당에서 현장접수로 신청 가능하다. 강연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총 4개의 강의로 꾸며질 예정이다. (051)853-0429 김나영 객원기자

# “효도 삼계탕으로 건강 챙기세요”

### 부산 용호종합사회복지관 300인분 보시

사단법인 위드아시아(이사장 지원)가 위탁 운영하는 용호종합사회복지관(관장 이춘성)이 7월 18일 초복을 맞아 지역 어르신 300여명을 초청하여 효도삼계탕을 보시했다.

이춘성 용호종합사회복지관 관장, 위드아시아 이사장 지원스님, 장, 위드아시아 이사장 지원스님, 이번 '사랑의 삼계탕DAY'는 부산 용호동 내 결식 및 소외된 어르신들의 건강한 여름나기를 위해 기획한

행사이다. 용호종합사회복지관의 이춘성 관장은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보양식은 고사하고 한 끼조차 해결하지 못한 굶어사는 어르신들이 많다. 어르신들의 경우 날씨가 무더울수록 음식을 잘 챙겨 드셔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 안타까웠다. 앞으로도 많은 이들의 후원과 관심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용호종합사회복지관은 어르신들을 위한 영양 삼계탕을 오는 중복과 말복에도 보시할 예정이다.



용호종합사회복지관에서 삼계탕 300인분을 보시했다.

김나영 객원기자

# 국제선 불교 조계종

### 중생구제 인간방생 활동으로 부처님 세상을 이루고자 하는 존경받는 자랑스런 종단!

### 12 인연의 소중함속에 화합과 단결과 품앗이로 서로 돕는 종단!

### 부처님을 감동시키는 부처님 세상, 참다운 불교 종단! 누구에게나 땀땀하게 자랑할 수 있고 소개할 수 있는 종단!



부처님 불제자로서 부끄럽지 않기를 서원하며 수행 정진하는 먹물 옷에 취하지 않은 스님다운 스님, 머리로 살지 않고 가슴으로 살아가는 살아있는 부처님들을 모시고자 합니다. 그들이 진정한 불교 지도자요, 중생의 지도자이기 때문입니다. 어렵고 힘든 여건 속에서도 모든 것을 공양 올리고자 하는 뜻을 함께 하여 부처님 세상을 이룰 사찰 및 암자, 포교당 스님(원장)들의 종단 가입을 바랍니다. 마음과 몸으로 고통받는 중생들을 위한 인간방생을 실천하는 사찰과 스님들의 가입으로 알차고 자랑스런 부처님을 감동시키는 종단의 주인공이 되어 보십시오. 무엇을 주저하십니까? 사찰과 암자, 포교당 주지스님과 원장이라면 누구나 종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 미얀마 대통령으로부터 승려 최상 최고의 품수를 받은 대승정 목탁스님.

### AGGA MAHA, SADDHAMMA JOTIKAD HAJA 작위

아깨(AGGA)라는 뜻은 맨위, 첫 번째, 최고의 뜻을 가진 승려로서는 더 이상 누릴 수없는 최고의 품수라는 뜻.

마하(MAHA)는 큰, 크다는 뜻이고 사다함마 다(하)자(Saddhamma Jotikadhaia)는 봉사 및 인간방생에 많은일을 하신 성스러운 승려로 충분한 자격을 갖춘 사람,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고 베풀 의로운 사람이란 뜻으로 표현한다.

종 정 목탁혜은 부 종 정 불원혜정 원로원장 보각  
총무원장서리 지암 부 원 장 고산

포교원장 현담 교육원장 청운 호법원장 진성 감찰원장 송몽 총회의장 도암 원로의장 심오 비구니회장 대연  
종단부장 : 현관, 법산, 지명, 휴암, 종암, 금산, 여승, 진일, 개오, 도광, 월산, 원광

### 우리 종단만이 입을 수 있는 승복 및 수자보, 장삼, 가사까지 갖추어진 종단입니다.

서울시 종로구 청진동 6번지 신영빌딩 303호 종교법인 국제선불교 조계종  
대표전화 02)733-5665. 팩스 733-5671. H·P : 011-229-6061